

# 심야소극장 17곳 立件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서울 시내 17개 심야 소극장의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은 23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시내 47개 소극장에 대한 기술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들이 관람해서는 안 되는 퇴폐성인영화를 상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입장시켰거나 △불법 전자오락기를 설치해 영업을 해온 17개 업소를 50만원의 벌금에 처한 것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또 소극장에서 퇴폐성인영화를 관람하던 미성년자 39명을 적발했으나 모두 훈방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백22개의 소극장이 주막가 학교 주변을까지 들어서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의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경은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적발된 소극장과 다들 같

## 청소년입장 퇴영화 상영

△아현소극장 (北阿峴동 21의7) △전원 (延南동 571의17) △오류 (梧柳동 46의2) △삼모스 (興農동 620의69) △시네마 (永登浦 4가9) △대양 (加里峰동 135) △시대 (興農동 622의24) △신촌 (始興동 883의8) △고려 (泰昌동 137의154) △미산 (永登浦 2가18의11) △저울타운 (東子동 43의59) △남진 (鷺梁津동 72의48) △삼선 (東小門 2가동 3) △해성 (加里峰동 124의13) △충대문 (鍾路 5가 321의19) △북동 (永登浦 4가 68)

가 321의19) △북동 (永登浦 4가 68)

아시아선주촌 아파트  
溫水공급 재개

지난 20일부터 인접인정 등을 요구하며 오수공급을 중단했던 서울특별시 瑞草洞 아시안선수촌아파트관리소(위원장 秋秉隆)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수공급을 재개

## 盜難카드로 2億사기

술집종업원과 짜고 가짜전표 만들어

13명令狀 15명수배

서울관안경찰서는 24일 소매치기로부터 잡힌 신용카드를 사들이고 술집종업원과 짜고 술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카드회사에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2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가토록 한 혐의로 (31·부지) 서울瑞草구盤浦2동고려인삼동 203호(와) H디스크를업종업원 鄭秀衍씨(26) 등 모두 13명을 상습사

기 및 장물죄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尹明仁씨(32) 등 15명을 잡는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씨는 지난해 7월 4일 신용카드를 남작인 소매치기 白모씨(30·수배중)가 훔쳐온 안모씨(33·청원경찰)의 은행신용카드 1장을 10만원에 사들이 뒤 이날 밤 렌터카로 瑞草구瑞草동 바나나디스크를업종

江陵유류가의 술집 8곳을 차례로 들러 미리 공모한 술집종업원들과 함께 이 신용카드로 술집 한곳당 20만~40만원씩 모두 2백40만원여치의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냈다.

범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백20장의 훔친 신용카드를 사들여 2억5천여만원의 가짜 매출전표와 술집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여고생이 '1일 술집' 디스코장 빌린 23명 징계

【남양주=배경록 기자】 여고생 23명이 디스코장을 빌려 일일술집을 운영하다 교사들에게 적발돼 퇴학·정학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고등학교(교장 이대호)는 지난 6일 일일술집을 연 김아무개(18·2학년)양을 퇴학시키고 이아무개(19·)양 등 16명을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 2명을 근신조치했다.

학교쪽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마돈나' 디스코장을 빌려 일일술집을 열기로 하고 회비마련을 위해 티켓 4백여장을 만들어 1장당 3천원씩 받고 서울·남양주 등지의 고교생 친구들에게 팔았다는 것이다.